

대구·경북 ‘코로나19’ 에도 소비자물가 상승

지난달 대구와 경북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도 동반 상승했다.

3일 동북지방통계청의 2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33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1.2% 각각 상승했다. 경북도 105.22로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1.2% 동반 상승했다.

대구지역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 각각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에 비해서 1.2% 상승했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에 비해서 2.4%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했지만 전년동월에 비해서 4.4% 떨어졌다.

지출목적별 동향은 전월과 비교하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9%), 기타상품 및 서비스(0.6%) 등은 상승했고, 주류 및 담배, 통신, 교육, 음식 및 숙박은 변동이 없었다. 오락 및 문화(1.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5%), 교통(0.3%), 보건(0.1%)은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교통(7.0%), 기타상품 및 서비스(2.4%), 음식 및 숙박(2.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6%) 등은 상승했다. 오락 및 문화(2.0%), 통신(1.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 교육(0.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 성질별 동향에서 상품은 전월대비 0.1% 하락했지만 전년동월 대비는 1.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5% 각각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변동 없었지만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에 비해서 0.9% 각각 상승했다.

특히 집세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하락했다.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

비 1.8% 각각 상승했다.

경북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2%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달(1.5%)보다는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에 비해서 1.9% 각각 오름세를 보였다.

식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에 비해서 1% 각각 상승했다. 식품 이외도 전월대비 0.3% 올랐고 전년동월에 비해서 2.5%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에선 전월과 비교하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0.9%),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0.8%), 의류 및 신발(0.4%), 기타상품 및 서비스(0.2%) 등은 상승했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음식 및 숙박은 변동이 없었다. 오락및문화(1.1%), 보건(0.2%), 교통(0.1%), 통신(0.1%)은 하락했다.

또 전년동월대비로는 교통(7.5%), 기타상품 및 서비스(1.5%), 음식 및 숙박(1.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1%), 보건(1.1%) 등은 상승했고 오락 및 문화(1.7%), 통신(1.5%), 교육

(1.1%) 등은 하락했다.

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주요 요인은 공업제품 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등의 개인 서비스의 상승이다”며 “작년 같은 기간의 소비자 물가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반영됐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은 이러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산물, 해외단체여행비, 국제항공료, 콘도이용료, 호텔숙박료 등의 물가는 하락했다”면서, “고등학교납입금 등 공공서비스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공동주택관리비 등 개인서비스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다. 기준년도는 지난 2015년(지수 100)이며 대구와 경북은 총 460개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을 조사했다.

황보문욱 기자
hmo4910@naver.com

한샘, ‘코로나19’ 긴급구호 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억원 기부
취약계층·일선근무자, 긴급 구호물품 지원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들을 돌보는 일선 현장 근무자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한샘은 사랑의 열매에 10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쪽방촌 어르신 800여명과 지역아동센터 110개소의 저소득가정 아동 2,000여명, 일선 근무자 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따뜻한 밥 한끼를 나누던 대구 광역푸드뱅크 등 사회복지 단체와 지역아동센터의 무료급식 활동이 중단됐다.

쪽방상담소 거주자들은 주 2~3회 가량 이용해오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은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외부 출입마저 제한되면서 마스크 등 방호용품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끼니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긴급 지원도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복지사가 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 긴급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센터 아동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도시락을 전해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비용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사옥 전경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있는 일선 근무자들을 위한 긴급지원도 시급하다. 이들은 현재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호용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소방대원들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확진자와 접촉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부 소방대원들은 마스크와 방호복 뿐만 아니라 고무로 코팅된 보호용 장갑 부족으로 일반 수술용 장갑만 착용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일반 수술용 장갑은 얇은 고무 재질로 쉽게 찢어져 소방대원들이 손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잦아 감염 위험이 높다.

실제로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해 격리중인 소방대원은 지난 2일 기준 총 568명에 이른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알게 됐고, 사랑의 열매와 함께 긴급 지원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욱 기자 hmo4910@naver.com

가스공,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50만 장 헌물 지원

지난달 7만여 장 기증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한 대구시민을 위해 마스크 총 50만장(약 15억 원 상당)을 헌물 지원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2일 마스크 총 50만 장을 대구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구매 후 수

량이 확보되는 대로 수시로 대구시에 기증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고 의료 현장에서도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번에 대구지역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헌물 지원에 나섰다.

채희봉 사장은 “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모든 임직원

이 대구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20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마스크 5천700장과 살균소독제 570개를 확보하고 27일 대구 전역의 노인복지시설 19곳에 전달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의료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6만7천340장을 추가 구매했으며, 이 물량은 오는 10일 경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대구은행과 조성한 2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확진자 발생지역 내 영업장 보유 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 곳당 5억 원을 한도로 최대 2.7%까지 금리 감면(기본 1.5%, 추가 1.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보문욱 기자
hmo4910@naver.com

산단공, 자율형 산학협업의체 11개 확대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중소기업이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는 수평적 기술혁신 네트워크인 자율형 산학협업의체(미니클러스터, 이하 MC)를 올해부터 11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형 MC는 지난해 도입해 현재 전국에 11개의 자율형 MC가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 MC는 전국 88개 MC

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총 11개의 자율형 MC에는 입주기업 784개사를 포함해 총 945개의 산학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과제기획, 기술세미나, 교육 등을 운영 시 기업현장의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산단공은 지난 한 해 동안 현장맞춤

형기술개발 등의 R&BD사업으로 총 27.5억원,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 등에 총 4.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각 MC에 연간 약 1.4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등의 과제는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

황규연 이사장은 “지난 16년 동안 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구축된 MC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며 “현재 운영 중인 88개 MC 전체

가 자율형MC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단공은 현재 준비 중인 산업단지 ‘코-이노베이션(Co-Innovation)’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7,245억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황보문욱 기자 hmo4910@naver.com

화성산업, ‘코로나19’ 성금 3억 전달

회사내 임대료 50% 감면

화성산업이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

화성산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억원을, 화성장학문화재단을 통해서도 대구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성금 1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회사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해줄기로 결정했다.



화성산업 본사 전경

특히 화성산업은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계속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황보문욱 기자 hmo4910@naver.com

www.techen.co.kr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친환경 LED 조명전문기업-

희망의 빛을 창조하는 기업 테크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 선정으로 (주)테크엔은 광산업의 융합기술을 조명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미세먼지 제어용 조명**을 개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조명분야의 대표기업입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 전 세계 300만명 이상이 미세먼지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 - 해럴드경제 뉴스 -

세계 최초로 개발된 태양광 충전 미세 먼지 저감용 LED 등기구

태양광 충전 미세 먼지 저감용 LED 가로등

- 미세 먼지 필터 자동세척 기능이 내장된 공기 정화 장치 적용 (특허 제10-2041158호)
- 태양광 발전 및 리튬 배터리 내장하여 미세먼지를 센서에 의해 자동 동작
- Model - 80W, 100W, 120W, 150W, 180W

태양광 충전 미세 먼지 저감용 LED 보안등

- 고효율 LED 조명 적용 및 속도 조절가능
- 방호율 120lm/W 이상
- 용도 - 골목길, 공원, 광장, 인도 조명, 산책길
- Model - 25W, 30W, 40W, 50W, 60W

미세 먼지 저감용 LED 공장/투광등

- 미세 먼지 필터 자동세척 기능이 내장된 공기 정화 장치 적용 (특허 제10-2041158호)
- 용도 - 산업현장, 화학발전소, 분진 많은 지역
- 실내 세척용, 야외 전시장
- Model - 150W, 200W, 250W, 300W

필터 자동 세척 기능 내장 (특허 제10-2041158호)

필터 자동 클리닝 공기정화 시스템을 구비한 LED

모듈 LED 가로등
(일반 공업용, 다목적)

모듈 LED 보안등
(한도로공사 표준모형 적용)

CC카메라 내장형 보안등
(사건화재지역 및 무법지역 방치조각)

CC카메라 겸용 대형투광등
(로비대, 광장, 스포츠 시설)

고출력 모듈LED 투광등
(골프장, 광산, 광천, 기타)

LED 공원등
(자연형상조명 및 다방향배광형)

모듈 LED 테널등
(한도로공사 직접배출 조명)

LED 횡단보도등
(배출형인도 조명 기구)

LED 비상조명
(비배출형 LED 비상조명)

LED 조명, 전기공사, ESCO 전문기업

TECHEN
주식회사 테크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50길 99
T. (053) 993-5678 F. (053) 993-1279

KONEX

LED 조명 & 신재생에너지 전문생산기업

영남엘이디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111번길 16
T. (054) 273-6611